

근대기 유성기음반과 서양영화*

— 영화설명 음반을 중심으로

구인모**

1. 서론
2. 근대기 조선의 유성기음반과 서양영화
3. 영화감상의 방법 혹은 상품으로서 변사의 영화설명
4. 영화설명의 서사, 관객·청취 대중의 취향
5.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우선 근대기 조선에서 유성기음반으로 발매된 할리우드 영화의 영화설명 음반 자료를 개관하여, 음반 발매의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을 주로 취급한 변사들의 작품을 분석하여, 변사에 의한 영화 서사의 변용 양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특정한 원작의 영화가 정규반과 보급반으로 여러 차례 발매된 사례, 같은 작품을 두고 서로 다른 변사가 취급한 사례, 그리고 특정한 변사가 취급한 레퍼토리의 분석을 통해, 당시 서양영화 및 변사의 영화설명에 대한 조선인 관객과 청중의 취향과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성과임(NRF-2009-361-A00027). 아울러 이 글에서 소개한 유성기음반 관련 자료들(음원, 가사지, 음반회사 홍보잡지 등)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배연형 교수가 제공한 것임을 밝힌다. 이 자리를 빌어 자료 제공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HK교수

서사를 둘러싼 욕망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그것이 사실은 근대기 영화와 음반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의 자본과 기술의 전지구적 확산의 결과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 유성기음반, 할리우드 영화, 영화설명, 변사, 문화산업)

1. 서론

1935년경 『조광(朝光)』지의 한 기자는 어느 비구니 사찰을 방문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비구니들이 유성기(留聲機)로 “청춘의 불타는 사랑을 안고 ‘엘레나’는 그의 애인 ‘퍼킨슨’을 팔아 멀고 먼…” 운운하는 쇠목청의 변사가 낭독하는 영화설명 음반을 냇을 잃고 듣는 장면을 눈여겨본다. 이 기자는 이 풍경만으로도 세속의 취미와 욕망에 침윤한 사찰의 분위기를 드러내기에 족하다고 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¹⁾ 하지만 그보다 흥미로운 사정은, 우선 필시 조선반(朝鮮盤)이었을 그 ‘영화설명’ 음반이 조선영화가 아닌 외국영화의 내용을 변사가 설명한 내용이라는 것, 또한 그 음반을 비구니들마저 애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기사는 당시 영화의 서사를 감상하는 한 방법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와 유성기음반(SP Record)의 관계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영화관의 은막(銀幕) 앞에서 직접 관람하는 체험도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관에서 직접 관람하는 방법 이외 영화의 서사를 사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향유하는 일이 오늘날처럼 여의치 않았던 당시로서는, 유성기음반은 영화를 대신하는 훌륭한 매체였을 터이다. 그러

1) 一記者, 『슬어지는 僧房의 모던이즘—淨化舍 뒤를 밟아서 男性禁制의 尼院』, 『朝光』 第1卷 第1號, 朝鮮日報出版部, 1935. 10.

한 사정에서 근대기 조선에서 발매된 유성기음반 가운데, 비록 유행가 요나 전통음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법 적지 않은 영화설명 음반이 발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화설명 음반은 이름 그대로 변사(辯士)가 주로 관현악단의 반주와 가수의 독창을 배경으로 삼아 영화의 내용 설명을 취입한 음반으로서, 양면반(兩面盤) 1매 혹은 2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6분 내외에서 최대 14분 내외의 음원을 수록하고 있다. 근대기(1907~1942) 조선에서 발매된 이러한 영화설명 음반은 약 211매가 발매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며²⁾, 그 가운데 서양영화의 영화설명 음반이 약 84면(42매), 조선과 일본영화 영화설명 음반이 약 127면 정도의 규모를 차지한다. 이것은 전체 극음반(약 1232면) 가운데 약 6.8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이 영화설명 음반은 주로 당시 조선의 영화관에서 실제로 상영된 영화를 원작으로 한 것이지만, 실제로 조선에서는 상영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상영되어 제법 영화관객 혹은 유성기음반 청취 대중의 환영을 받았던 영화를 원작으로 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화설명 음반은 주로 영화 서사의 경개(梗概)를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작의 일부만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것은 음반 1매에 최소 6분에서 7분 남짓한 분량의 음원만 취입할 수 있는 유성기음반의 속성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 영화설명 음반 가운데에는 음반은 물론 그와 관련된 문헌(가사지, 음반회사 홍보잡지)마저 현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원작을 알 수 없어서 그 내용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작품이 허다하다.³⁾ 그도

2) 동국대학교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한국유성기음반(전5권)』, 한결음더, 2011.
 3) 물론 근대기 영화설명 음반의 일부가 한 차례 복각된 바 있다. 《유성기로 들던 무성영화》(SYNCD-120~122), 신나라(킹레코드), 1996. 그리고 그 내용도 단행본으로 간행된 바 있다. 최동현·김만수, 『일제강점기 유성기음반속의 극·영화』, 태학사,

그럴 것이 영화설명 음반 가운데에는 음반 레이블을 비롯하여 관련 문헌에 ‘영화극’이라는 장르명을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아닌 신파극(新派劇)의 내용을 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⁴⁾ 더구나 근대기 조선에서 발매된 유성기음반 전체(약12,651면) 가운데 영화설명 음반의 규모가 약 1.6퍼센트 정도여서, 이 영화설명 음반은 좀처럼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영화설명 음반은 근대기 조선에서 향유된 영화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영성한 가운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무성영화의 경우 변사의 육성(肉聲)과 연행(連行)의 특징적인 국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영화설명 음반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영화설명 음반 가운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외국영화, 특히 서양영화 관련 음반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근대기 조선의 영화관객들이 매료되었던 대부분의 영화가 서양영화였거니와⁵⁾, 근대기 조선에서 본

1998.

- 4) 그 대표적인 음반이 〈長恨夢〉(Columbia40004-5, 장르 映畫劇, 연주 徐月影·卜惠淑·金永煥·金香蘭·金桂善, 반주 朝鮮劇場管絃樂團, 발매 1929. 2.)과 〈不如歸〉(Columbia40093-4, 장르 映畫劇, 연주 金永煥·卜惠淑, 金香蘭·金桂善, 반주 朝鮮劇場管絃樂團, 발매 1930. 4.)이다. 이 음반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의 서지를 참조할 수 있다. 구인모, 「지역·장르·매체의 경계를 넘는 서사의 역정」, 『사이間SAI』 제6호, 국제한국문화문화학회, 2009. 그리고 앞으로 음반의 서지사항은 작품명 옆 괄호에 음반번호와 발매일자만을 명기하기로 한다. 자세한 서지사항은 이 글 말미의 작품목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 5) “영화의 유행 경향은 국제적 무대를 갖게 된다. 여기에 착잡(錯雜)되는 관객의 요구는 기묘하다”(기사, 『모던風聞錄: 戀愛와 思想上 明朗을 차저 映畫館에 大衆集散 三二年獵奇的流行(五)』, 『每日申報』, 每日申報社, 1932. 12. 14. 8면) 근대 한국에서 외국영화 수용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서지를 참조할 것. 유선영, 「육체의 근대화」, 『문화과학』 제24호, 문화과학사, 2000. 이호걸, 「식민지 조선의 외국영화—1920년대 경성의 조선인 영화관에서의 외화상영」, 『대동문화연구』 제72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1920년대 조선에서 외국영화 담론」, 『영화연구』 제49호, 한국영화학회, 2011.

격적으로 발매된 영화설명 음반 또한 서양영화였기 때문이다. 물론 음반 발매의 규모의 차원에서 보자면, 서양영화의 영화설명 음반은 조선과 일본영화의 영화설명 음반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은 조선과 일본영화의 경우와 달리 당시 관객 혹은 청취 대중에게 적지 않은 호응을 얻었던 작품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 정규반은 물론 보급반으로도 재발매되기도 했다. 이것은 근대기 조선에서 서양영화의 영향력을 짐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보급반으로 재발매된 음반의 원작 대부분이 실제로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상영되었던 사정은, 그 작품의 영향력은 물론 영화설명을 둘러싼 조선인의 취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근대기 조선에서 정규반 1매의 평균 가격이 1원 50전 내외였고, 음반 1매의 제작비가 최저 2백 원을 상회했던 사정을 염두에 두고 보면⁶⁾, 서양영화의 영화설명 음반은 흥행을 보장할 만하거나, 혹은 예상되는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발매되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점에서 서양영화의 영화설명 음반 가운데 대다수가 김영환(金永煥) 등 특정 변사가 취임한 것이었던 사정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서양영화의 서사만이 아니라, 변사에 의한 그 서사의 특별한 연행 또한 하나의 문화상품이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우선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을 둘러싼 이러한 국면을 염두에 두고, 근대기 한국의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의 발매 상황은 물론, 그 가운데 원작을 확인할 수 있고 음원도 남아 있는 음반 가운데 정규반과 보급반으로 발매된 작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특정한 영화의 서사, 특정한 변사의 영화설명이 반복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향유

6) 李瑞求, 「봄과 □와 레코드」, 『別乾坤』 第72號, 開關社, 1934. 4. 8쪽.

되었던 사정을 통해, 그것에 대한 조선인 관객·청취 대중의 취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근대기 조선에서 서양영화는 물론 그 영화설명 음반은 어떤 문화상품이었던가, 나아가 그 서사는 조선의 관객·청취 대중에게 무엇이었던가를 다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2. 근대기 조선의 유성기음반과 서양영화

근대기 조선에서 발매된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은 약 42종이고, 음반에 수록된 작품 편수는 약 42편이다. 그 가운데 가사가 현존하는 작품은 〈自薔薇〉(VI, 40490, 1928. 12) 외 12편, 음원이 현존하는 작품은 15편이다.(부록 음반목록 참조) 이 음반들의 작품명, 음반 관련 각종 기록과 영화 관련 신문 기사, 특히 음반의 발매 시점과 영화의 상영 시점을 토대로 원작을 비정(批正)해 보면,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의 원작은 대체로 미국의 무성 영화였으며,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작품들이 조선에서도 상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그리고 당시 음반회사들이 영화설명 음반 발매를 기획하는 가운데 참조했던 것은 두말할

7) 원작의 국적별 작품 편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적	미국	독일	프랑스	미상	계
편수	29	5	3	5	42

또한 상영 여부가 확인된 작품 편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상영작	상영 추정작	미상	계
편수	31	2	8	42

아울러 이 가운데 무성영화와 발성영화의 편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무성영화	발성영화	미상	계
편수	24	12	6	42

나위도 없이 일본 극장가의 동정이나 영화설명 음반 발매 동향이었다.⁸⁾ 그리고 이러한 서양영화 해설음반은 주로 당시 유명한 조선인 변사들이 취입했으며, 특히 김영환과 서상필(徐相弼)이 절반 이상의 음반을 취입했다.⁹⁾ 음반 관련 각종 기록, 해당 작품의 상영관 등으로 보건대, 그들은 대체로 자신이 소속했던 극장의 상영작을 음반에 취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은 어쿠스틱 녹음(확성기 녹음) 시대였던 1926년(〈저 언덕을 넘어서〉, 일축조선소리반K590, 1926. 10)과 1927년부터 발매되어 전기녹음(마이크 녹음) 시대였던 1938년(〈二國旗알에〉, Okeh12118, 1938. ?)까지 줄곧 발매되었다. 그리고 이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은 주로 1930년부터 1938년 사이, 특히 1930년 가장 많이 발매되었다.¹⁰⁾ 이것은 서양영화가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의 관객·청중으로부터 제법 환영을 받았던 사정¹¹⁾, 1932년경부터 유행가요와 신민

8) 閔孝植, 『新春에는 엇든 노래 流行할가—새로히 流行될 짜즈盤』, 『三千里』 第8卷 第2號, 三千里社, 1936. 2. 128쪽.

9) 음반취입에 참여한 변사들과 음반 종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사	金永煥	徐相弼	朴昌遠	徐相昊	金鑿盛
종수	16	8	5	3	3
변사	成東鎬	金惠經	柳寅晨	李愚興	계
종수	2	1	2	2	42

10) 연도별 영화음반 발매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종수	1	3	1	2	7	4	3
연도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계
종수	3	3	4	4	5	2	42

11)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 가운데 가장 처음 발매된 〈저 언덕을 넘어서〉(일축조선소리반K590, 1926. 10)의 경우, 『東亞日報』(1926. 9. 27. 1면 소재)에 첫 광고가 게재된 이래 『朝鮮日報』(1928. 9. 22. 5면 소재)에 마지막 광고가 게재될 때까지, 햇수로는 3년 동안 총 7회에 걸쳐 신문에 광고가 실렸다.

요가 음반회사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던 사정¹²⁾, 그리고 1937년 연말부터 일본의 서양영화 수입 통제가 시작되었던 사정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¹³⁾

그런가하면 조선에서 서양영화의 영화설명 음반을 가장 많이 발매했던 회사는 역시 근대기 조선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발매했던 일본콜롬비아축음기주식회사(이하 일본콜롬비아사로 약칭)였고, 그에 버금갈 만큼 발매했던 회사는 일본폴리돌축음기상회주식회사(이하 일본폴리돌사로 약칭)였다.¹⁴⁾ 이 가운데 일본콜롬비아사의 경우 정규반 레이블로 1929년 12월(〈썬-제스트〉, Columbia40058-9)부터 1932년 2월(〈歷旅〉, Columbia40287)까지 총 10종, 보급반 레이블로 1930년 3월(〈第七天國〉, 일축조선소리판K8-입07)부터 1932년 2월(〈名金〉, 일축조선소리판K859)까지 총 6종, 1934년 7월(〈名金〉, RegalC109; 〈說明리뷰〉, RegalC159) 총 2종을 발매했던 사정에 주목해 본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콜롬비아사는 1929년 2월 제1회 신보를 발매한 이래 전래음악과 유행가요를 중심 레퍼토리로 삼는 1934년경까지, 일본

12) “朝鮮에 레코드 문화가 수입되던 초기에는 그 중 만히 일반에게 알려지든 것으로, 그 뒤, 차츰차츰 외래의 유행가 풍으로 그만 기울어지면서 또 一方 영화 해설같은 것도 한때에는 상당히 일반에게 환영되어 유행되던 때가 잇섯으나 그 뒤 차츰 그 힘이 미약해지는 현상으로 되고 말었다.”(李基世, 『新春에는 엇든 노래 流行할가—『民謠』와 『新民謠』의 中間의 것』, 위의 책, 123~124쪽.)

13) 京城日報社·每日申報社 編, 『昭和十三年 朝鮮年鑑』, 京城日報社·每日申報社, 1937, 618쪽; 京城日報社, 『昭和十五年 朝鮮年鑑』, 京城日報社, 1942, 594쪽.

14) 음반회사별 음반 발매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음반 회사	Co.			Vi.	Po.	Ch.	Ta.	Ok.	Nt.	계
	Co.	Re.	Ni.							
종수	9	2	6	6	8	2	2	5	2	42

※ 음반 레이블 약호: Columbia(Co.), Regal(Re.), 일축소리조선반·일축소리조선판(Ni.), Victor(Vi.), Polydor(Po.), Chieron(Ch.), Taihei(Ta.), Okeh(Ok.), 제비표조선레코드(Nt.).

축음기상회의 레퍼토리를 계승하는 한편 다양한 레퍼토리를 실험적으로 발매하면서 조선의 청취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고자 했다.¹⁵⁾ 그리고 정규반 레이블로 발매된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은 바로 그러한 일본콜럼비아사의 실험의 소산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일본콜럼비아사가 보급반 레이블로 발매한 8종의 경우 정규반과 사정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보급반 레이블의 경우, 정규반 가운데 흥행에 성공한 레퍼토리를 재발매한 음반이거나, 특별히 흥행이 예상되는 레퍼토리를 정규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염가(1원 내외)로 보급하기 위한 음반이기 때문이다.¹⁶⁾ 즉 일본콜럼비아사의 보급반은 단순한 실험의 소산이 아니라, 적어도 당시 관객·청취 대중의 호응을 염두에 둔 음반회사의 분명한 기획에 따라 발매한 음반이었던 셈이다.

일본콜럼비아사가 이토록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을 발매했던 데에는, 이미 일본에서도 영화설명 음반을 주력 상품으로 제작했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조선의 청취 대중을 둘러싼 일본빅터축음기상회주식회사(이하 일본빅터사로 약칭)와의 경쟁도 한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콜럼비아사에 비해 1년이나 앞서 조선에 진출했으나, 일본빅터사 또한 〈荒城의 跡〉(Victor49125A, 1932. 4)이 흥행할 때까지 전래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실험적으로 발매하고 있었다.¹⁷⁾ 그 가운데 일본빅터사는 일본콜럼비아사에 앞서 단성사(團成社) 변사 김영환과 단성사 관현악단을 동원하여 정규반 제1회

15) 배연형, 『콜럼비아(Columbia) 레코드의 한국음반연구(1)』, 『한국음반학』 제5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5.

16) 배연형, 『콜럼비아(Columbia) 레코드의 한국음반연구(2)』, 『한국음반학』 제6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6.

17) 李基世, 『名歌手를 엿더케 發見하였든나—結婚式날 밤 李愛利秀의 獨唱』, 『三千里』 第8卷 第11號, 三千里社, 1936. 11. 배연형, 『빅타(Victor) 레코드의 한국 음반 연구』, 『한국음반학』 제4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4.

신보로 〈白薔薇〉(Victor49040, 1928. 12)을 발매하고, 뒤이어 〈嘻 無情〉(Victor49016, 1929. 1)을 발매했다.¹⁸⁾ 그런데 일본빅터사가 이후 김영환과 서상필의 음반을 간헐적으로 발매했던 사정은,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을 분명한 기획에 따라 발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서 일본콜럼비아사는 일본빅터사에서 이미 음반을 발매한 바 있는 김영환을 끌어와서 제법 적극적으로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을 발매했던 것이다. 심지어 일본콜럼비아사는 일본빅터사가 발매한 〈백장미〉를 보급반(RegalC159, 1934. 7)으로 발매하기도 했다.¹⁹⁾

한편 일본폴리돌사는 다른 다국적 음반회사들(미국: 일본콜럼비아사·일본빅터사, 독일·영국: 일본폴리돌사)에 비해 다소 늦게 조선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1932. 9), 진출 초기부터 전래음악을 중심으로 유행가요와 극음반 등 다양한 레퍼토리의 음반을 동시에 발매하며 매우 적극적으로 조선의 청취 대중에 호소하고자 했다.²⁰⁾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먼저 조선에 진출했던 일본빅터사와 일본콜럼비아사의 선례를 참조하여 단성사 변사 서상필, 성동호(成東鎬) 그리고 오늘날 좀처럼 알려지지 않은 박창원(朴昌遠)이라는 변사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영화설명 음반을 발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정은 일본폴리돌사의 음

18) 음반의 발매일자만 두고 보면 〈백장미〉가 〈희 무정〉보다 앞서지만, 음반번호를 두고 보면 그 반대이다. 당시 일본빅터사가 제1회 신보 중 아악(雅樂) 음반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본 요코하마(横浜)의 본사에서 조선반을 취입·제작했던 사정을 염두에 두고 보면, 사실상 이 두 음반은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배연형, 위의 글.

19) 이러한 사정은 일본의 경우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국회도서관이 소장한 1920년에서 1949년 사이에 발매된 총 626면의 극(劇) 장르 음반 가운데, 장르명이 '映畫說明' 혹은 '映畫物語'인 음반은 총 416면인데, 이 가운데 총 398면(Co.: 222, Re.: 154, Ni.: 22)이 일본콜럼비아축음기주식회사의 음반이다. (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역사적음원' 사이트 <http://dl.ndl.go.jp/#music> 참조)

20) 배연형, 『폴리돌(Polydor) 레코드의 한국음반 연구』, 『한국음반학』 제7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7.

반이 비교적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매된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²¹⁾

이들 다국적 음반회사들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제국축음기주식회사(이하 일본오케사로 약칭)도 총 5종의 외국영화 영화설명 음반을 발매했다. 이 회사는 1933년 2월부터 조선반을 발매하기 시작하면서, 유행가요는 물론 특히 신불출(申不出)의 희극 등 철저하게 대중적인 레퍼토리와 저가(低價) 음반을 앞세워, 먼저 조선에 진출한 다국적 음반회사들에 비견할 만큼 일약 굴지의 회사로 성장했다. 그런데 이 일본오케사는 여타의 음반회사들과는 달리 조선 진출 초기부터 영화설명 음반을 발매했던 것은 아니었고, 특정한 번사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레퍼토리를 발굴하고자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미 1936년을 지날 무렵 음반회사들이 영화설명 음반에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았던 사정, 그리고 일본오케사가 처음 발매한 〈海賊플러드〉(Okeh1968, 1937. 3)는 신문광고까지 하고 있던 상황에서 ‘치안 방해(治安妨害)’를 이유로 발매금지 처분을 받았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²⁾ 특히 후자의 경우 검열에 의한 발매금지 처분은 이 회사로서는 상당한 손실이었으므로, 영화설명 음반에 더욱 소극하게 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발매한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은, 다국적 음반회사들이 더 이상 영화설명 음반을 발매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특히 서양영화의 수입이 통제되었던 상황에서 발매되었다는

21) 서상필의 음반은 1932년 10월과 1933년 1월, 성동호의 음반은 1933년 8월과 10월에 각각 발매되었고, 박창원의 음반은 1936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발매되었다.

22) 광고, “3月新譜 燦也!! 業界의 無敵艦隊 오케-레코드 (一九六八) 映畫說明 海賊플러드 柳寅晟”, 『朝鮮日報』, 朝鮮日報社, 1937. 3. 3. 2면; 『每日申報』, 每日申報社, 1937. 3. 5. 4면. 기사, 「蓄音機 레코드 行政處分 目錄(三月份)」·「被處分蓄音機レコード 內容抄録(執務資料)」(映畫說明)海賊プラット, 『朝鮮出版警察月報』 第103號, 朝鮮總督府警務局圖書科, 1937. 4.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이러한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은 다른 장르의 음반에 비해 발매 규모는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조선에 진출한 다국적 음반회사로서는 음반산업의 기반 형성 과정에서 흥행을 염두에 두고 발매했던 중요한 문화상품이었다. 그것은 이 글의 모두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사찰의 비구니들마저도 향유할 만큼 제법 지속적으로 청취 대중의 호응을 얻었던 장르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한 사정은 적지 않은 영화설명 음반이 당시 주요 신문사의 광고는 물론 음반회사 홍보잡지의 ‘기(既)발매목록’에도 지속적으로 게재되었던 사정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²³⁾

3. 영화감상의 방법 혹은 상품으로서 변사의 영화설명

근대기 조선에 진출한 다국적 음반회사들이 한결같이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을 발매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간단히 거론한 바와 같이 영화에 대한 관객의 호응에 힘입고자 했던 음반회사의 상업적 기획 때문이다. 사실 영화설명 음반에 수록된 대부분의 서양영화 작품들은 상영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오랫동안 조선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작품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동아일보』만 보더라도, 〈희 무정(Les Miserables)〉

23)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에 최소 4회 이상 광고가 게재된 음반은 총 14종, 각 음반회사의 홍보잡지 『매월신보』에 2회 이상 게재된 음반은 총 16종이다. 특히 주요일간지에 총 6회 이상 광고가 게재된 음반은 〈저 언덕을 넘어서〉(총 7회), 〈동도(Columbia40204)〉(총 7회), 〈백장미(Victor49040)〉(총 6회), 〈희 무정〉(총 6회), 〈썬-게스트〉(총 8회), 〈열사의 무〉(총 6회), 〈칼멘〉(총 6회), 〈뽀빠이〉(총 6회), 〈불가〉(총 6회), 〈애국의 나팔〉(총 7회), 〈거리의 등불〉(총 7회) 이상 총 11종이다.

(프랑스, 1913·1925; 미국, 1917), 〈血과 砂(Blood and Sand)〉(Paramount, 1922), 〈蜂雀(The Humming Bird)〉(Paramount, 1924), 〈썬-제스트(Beau Geste)〉(Paramount, 1927), 〈第七天國(7th Heaven)〉(Fox, 1927), 〈歸鄉(Heimkehr)〉(UFA, 1928)과 같이 개봉된 작품은 물론, 〈制服의 處女(Mädchen in Uniform)〉(UFA, 1931)와 같이 개봉될 기약이 없는 작품들마저도 그 내용을 소상하게 소개하는 기사와 감상평을 일쭤 게재했거니와, 그러한 사정은 『조선일보』나 『매일신보』라고 해서 다를 바는 없다.²⁴⁾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영화설명 음반에 수록된 서양영화 가운데 〈동도(Way Down East)〉(UA, 1920)²⁵⁾, 〈크리스티나 女王(Queen Christina)〉(MGM, 1933)²⁶⁾, 특히 〈제칠천국〉과 〈曲藝團(Variete)〉(UFA, 1925)²⁷⁾과 같은 작품들과 그 출연 배우들은 두고두고 회자되기도 했다.

-
- 24) 雪園生, 「無慈悲 世上—噫無情劇을 본 感想(진6회)」, 『每日申報』, 每日申報社, 1920. 5. 14~19. 각3면. 雲汀, 「朝鮮劇場의 初演을 보고(진2회)」, 『東亞日報』, 東亞日報社, 1922. 11. 10~11. 각3면. 기사, 「映畫巡禮 썬-제스트(진3회)」, 『東亞日報』, 東亞日報社, 1927. 11. 8~10. 각3면; 「名作映畫의 洪水 상설관의 경쟁은 더욱 계속」, 『東亞日報』, 東亞日報社, 1927. 11. 13. 3면; 「唯一한 兄弟愛劇 名畫 『썬제스트』」, 『東亞日報』, 東亞日報社, 1927. 11. 18. 3면. 리재수, 「第七天國禮讚」, 『東亞日報』, 東亞日報社, 1928. 1. 31. 3면. 기사, 「新映畫 『歸鄉』을 보고」, 『東亞日報』, 東亞日報社, 1931. 2. 28. 4면. 밝아송이, 「試寫評」, 『東亞日報』, 東亞日報社, 1938. 2. 11. 5면.
- 25) 金東煥·金億(文壇諸氏, 「내가 조화하는 1. 作品과 作家, 2. 映畫와 俳優」, 『文藝公論』, 創刊號, 文藝公論社, 1931. 5), 申左峴(기사, 「設問-女優」, 『朝光』 第4卷 第9號, 朝鮮日報社出版部, 1938. 6).
- 26) 李鳩(「聖林에 明滅하는 戀愛風景」, 『朝光』 第3卷 第12號, 朝鮮日報社出版部, 1937. 12), 文藝峰(기사, 「設問-女優」, 위의 책).
- 27) 金基鎭·金東煥·金億(文壇諸氏, 「내가 조화하는 1. 作品과 作家, 2. 映畫와 俳優」, 위의 책), 咸大勳(名映畫에 感激된 場面」, 『朝光』 第4卷 第4號, 朝鮮日報社出版部, 1938. 4), 王平(기사, 「設問-女優」, 위의 책).

연번	음반번호	제목	연주	발매일자	원작
1	일축조선소리반 K621	東道	金永煥	1927. 2	〈Way Down East〉(1920)
	Columbia40204	東道	金永煥	1931. 6	
2	Victor49040	白薔薇	金永煥	1928. 12	〈The White Rose〉(1923)
	RegalC159	說明레뷰 (白薔薇)	金永煥	1934. 7	
3	Victor49016	噫 無情	金永煥	1929. 1	〈Les Miserables〉(미상)
	RegalC159	說明레뷰 (噫 無情)	金永煥	1934. 7	
4	Columbia 40110-1	椿姫	金永煥 卜惠淑	1930. 8	〈Camille〉(1921, 1927)
	RegalC159	說明레뷰 (椿姫)	金永煥	1934. 7	
5	일축조선소리반 K859	名金	徐相昊	1932. 2	〈The Broken Coin〉(1915)
	RegalC109	名金	徐相昊	1934. 7	
	RegalC159	說明레뷰 (名金)	金永煥	1934. 7	

그런가하면 어떤 작품은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음반으로 발매되기도 했는데, 위의 표로 제시한 작품들이 바로 그 사례이다. 위의 5편의 영화 가운데 〈동도〉, 〈희 무정〉, 〈명금〉의 경우 1920년대 초부터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상영되었거니와, 특히 〈명금〉의 경우 일본에서는 영화가 개봉한 이듬해 십여 종의 소설이 간행되기도 했으며²⁸⁾, 조선에서도 3종의

28) ①青木緑園, 『名金 探偵小説』·『名金 探偵小説(續)』·『其後のロロー: 名金 外篇』, 東京: 中村日吉堂, 1916. ②俊碩劍士, 『名金 探偵活劇(一·二·三)』, 東京: 江東書院, 1916. ③저자 미상, 『名金(上卷·下卷)』, 東京: 活動之世界社, 1916. ④北島俊碩, 『名金: 世界的大活劇』, 東京: 春江堂書店, 1916. ⑤長瀬春風, 『名金: 探偵活劇(前·後)』, 東京: 博文館, 1916. ⑥竹内斷腸花, 『名金』, 東京: 活動文芸社, 1916. ⑦エマーソン·ホ, 田口桜村 編, 『名金: 世界的大探偵(正編·続編)』, 東京: 三芳屋書店, 1916. ⑧黒谷天洞 編, 『名金: 探偵活劇』, 東京: 講談落語社, 1916. ⑨エマーソン·ホー, 齋木嶺水 訳, 『名金: 活動弁士の説明したる世界的探偵奇譚』, 東京: 齋木義一, 1916.

소설이 간행된 바 있다.²⁹⁾ 그런가하면 〈동도〉의 경우 조선에서는 1926년 2월 조선에서는 이경손(李慶孫) 각색, 윤심덕(尹心惠) 주연의 연극으로도 상연되었다.³⁰⁾ 이 음반들을 단지 정규반만이 아니라 보급반으로도 발매했던 일본콜럼비아사는 바로 그러한 관객의 호응을 음반의 소비로 잇는 데에, 그 어떤 음반회사보다도 적극적이었다. 이 음반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우선 일본콜럼비아사가 발매한 음반 대부분을 김영환이 취급했다는 점이다. 김영환은 영화설명 음반을 본격적으로 발매할 무렵 오랫동안 경성방송국(JODK)에서도 영화설명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는데³¹⁾, 일본콜럼비아사는 그러한 그의 인기를 염두에 두고 1930년대 중반까지 그의 영화설명 자체를 음반회사의 주요한 레퍼토리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³²⁾

⑩저자 미상, 『名金(上卷)』, 鹿兒島: 世界館, 1916. ⑪エマーソン・ホオ, 『名金:探偵活劇(前)』, 久留米: 栄館, 1916. 이상 간행 일자순으로 정리했음.

29) ①尹秉祖, 『探偵冒險小説 名金』, 新明書林, 1920. ②宋完植, 『사진소설대활극 名金』, 永昌書館, 1921. ③姜夏馨, 『(探頂昌險小説)名金』, 太華書館, 1934.

30) 『동아일보』 기사 ①『聲的, 美的, 靈的, 肉의-『藝術』을 貪하여 俳優生活』, 1926. 2. 6. 2면; ②『特別大公演 土月會』, 1926. 2. 6. 5면; 『조선일보』 기사 ③『土月會大公開. 今日 광무대에서 각본 『東道』의 주역에는 尹心惠 嬢』, 1926. 2. 6. 3면.

31) 그러한 사정은 당시 『동아일보』에 실린 경성방송국 편성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라디오방송—映畫解説 유고 作 噫無情 金永煥 伴奏 DS管絃樂團』, 1927. 6. 16. 3면; 『라디오방송—映畫解説 金永煥 “스테라파스” 伴奏 DS管絃樂團』, 1928. 3. 22. 3면; 『라디오방송—映畫解説 “我等의 海” 金永煥 伴奏 DS管絃樂團』, 1928. 4. 29. 3면; 『라디오방송—映畫解説 “사탄의 嘆息” 金永煥 伴奏 DS管絃樂團』, 1928. 11. 27. 3면; 『라디오방송—映畫物語 “멍어리 三龍” 金永煥 伴奏 CS管絃樂團』, 1929. 1. 21. 3면; 『라디오방송—映畫物語 “메틀로포리스” 金永煥 伴奏 朝劇管絃樂團』, 1929. 5. 20. 3면; 『라디오—映畫物語 “紐育의 波止場” 金永煥 音樂伴奏』, 1930. 3. 27. 7면; 『라디오—映畫物語 “村醫師” 金永煥』, 1931. 6. 2. 7면; 『라디오—連續映畫物語 “鍾洙의 설음” 金永煥』, 1932. 5. 27. 7면.

32) 그러한 사정은 김영환의 〈逆旅〉(Columbia40287-8, 1932. 2)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장르명이 ‘영화설명’으로 명기되어 있는 이 음반은, 영화설명의 순서, 방법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소개, 영화설명의 사례 몇 작품의 시연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그러한 사정은 일본콜럼비아사의 보급반으로 발매된 〈설명레뷰〉 음반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음반에는 위에 소개한 작품 이외에도 〈沈黙(Silence)〉(미국, 1926), 〈復活(Resurrection)〉(이탈리아, 1917; 미국, 1918·1927·1931)까지 모두 6편의 작품이 각각 1분 남짓한 길이로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는 변사 김영환의 특유의 작품도 있지만, 선배 변사들의 영화설명으로 유명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김영환이 취입한 작품도 있다. 이를테면 1920년 경성에서 〈희 무정〉(프랑스, 1913 혹은 미국, 1917)이 상영되었을 때, 극장에서 이 작품을 설명했던 변사는 김덕경과 서상호였다.³³⁾ 그리고 〈명금〉은 김영환이 취입하기 이전 혹은 취입하던 무렵, 서상호가 같은 음반회사에서 이미 정규반과 보급반을 각각 발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영화 〈명금〉의 대중적 인기를 반영하는 한편, 〈설명레뷰〉 음반이 변사 김영환의 영화설명을 위한 기획의 소산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하겠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영화 영화설명 음반이 본격적으로 발매되는 1920년대 후반 이미 조선의 영화 관객들은 단지 영화를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명망 있는 변사의 영화설명을 듣기 위해서라도 영화관에 갔다고도 한다.³⁴⁾ 이를테면 근대기 대표적인 변사 서상호의 경우 영화설명을 전후로 하여 곧장 악기도 연주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³⁵⁾, ‘지랄춤’ 혹은

음반은 유례를 찾기 어렵거니와, 이것은 오로지 김영환의 영화설명에 대한 청취 대중의 취향에 부응하기 위해 발매된 음반이라고 여겨진다.

33) 광고, “朝鮮扶植農業慈善會 主催 毎日申報社 後援, 『噫無情』 劇活動寫真大會”, 『毎日申報』, 毎日申報社, 1920. 5. 9. 3면.

34) 金潤雨, 『映畫解說에 對한 片感(上)』, 『東亞日報』, 東亞日報社, 1929. 11. 7. 5면.

35) 단성사(團成社)의 전주 〈명금(名金)〉 순업(巡業)의 성공을 전하는 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餘興에는 徐相昊 君의 『바올링』 등이 有하야 每夜 滿員의 盛況裡에 大歡迎 大喝采를 博하더라”(기사, 『名金大會 盛況』, 『毎日申報』, 毎日申報社, 1921. 2. 14. 4면)

‘뽕뽕이춤’이라는 춤을 추기도 하고, 재담을 하기도 하면서 관객의 흥을 돋우었다고 하는데³⁶⁾, 이러한 연행의 요소가 그의 인기를 드높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가하면 김영환의 경우 그의 영화설명에 매료된 관객들이 영화가 끝난 후에도 그의 대사를 외기도 했다고도 한다.³⁷⁾

그러므로 가장 많은 영화설명 음반을 취입했던 김영환의 경우, 이미 영화 관객들 사이에서 하나의 브랜드나 다름없었으며, 그러한 사정은 음반업계에서도 재현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연극배우 김동원이 김영환을 비롯한 유명 변사의 영화설명 음반은 노래 음반만큼이나 인기가 있어서 날개돋친 듯 팔려나갔다고 회고한 바는 당시 영화설명 음반의 대중적 환영의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³⁸⁾ 또한 그러한 사정은, 단지 무성영화만이 아니라 발성영화가 원작인 작품마저도 영화설명 음반으로 취입되었던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이를테면 조선 상영 여부를 알 수 있고, 원작을 분명히 비정할 수 있는 발성영화 작품 가운데, 서상필이 취입한 <클레오파트라>(Victor49371, 1935. 8)를 비롯한 12편의 영화설명 음반이 그 예이다. 발성영화의 등장으로 인해 영화관에서 변사의 입지가 위협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³⁹⁾, 당시 영화 관객에게 외국어(영어 혹은 일본어)에 대한 문식력(literacy)과 상관없이 변사의 영화설명이 이미 영화 감상의 중요한 요소이며, 음반업계 또한 그것을 흥행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었다면, 원작이 무성영화이든 발성영화

36) 柳興台, 「當代人氣辯士 徐相昊 一代記 自殺事件의 顛末」, 『朝光』 第4卷 第10號, 朝鮮日報社出版部, 1938. 10. 123쪽. 안중화, 「난숙기 아롱무늬 영롱히—3. 물러난 변사의 처절한 행로」, 『한국영화추천비사』, 현대미학사, 1998, 234쪽.

37) 김동원, 『제1부 나의 유년 시절』, 『미수의 커튼콜(김동원 나의 예술과 삶)』, 태학사, 2003, 19면.

38) 김동원, 위의 글, 위의 책, 19~20쪽.

39) 기사, 「發聲映畫登場 따라 辯士失職 끝에 自殺 과학문명을 저주하는 청년」, 『東亞日報』, 東亞日報社, 1938. 6. 15. 7쪽.

이든 구분할 이유는 없었을 터이다.

서양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설명 음반이 것처럼 음반회사의 흥행 본위의 기획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매되었던 데에는, 근대기 조선에서 영화설명 음반을 청취하는 일이 영화 관람을 대신하는 체험을 제공했던 사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영화설명 음반의 원작 영화들은 대부분 조선에서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개봉했던 작품들이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영 여부를 짐작하기 어려운 작품들도 있다. 이를테면 〈惡魔의 寵兒〉(Polydor19019, 1932. 10)을 비롯한 9편의 작품들이 그러한데 그 가운데 〈썬타-크〉(Polydor19070, 1933. 9), 〈크리스티나 女王〉(Victor493입11, 1935. 12), 〈로미오와 줄리엣〉(Polydor19337, 1936. 9)와 같은 작품들은 당시 신문에 영화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만 게재되어 있을 뿐, 실제 상영 여부는 알 수 없다.⁴⁰⁾

물론 당시 조선의 지식인·예술인들 가운데에는 〈크리스티나 여왕〉을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라고 술회한 이들도 있다.⁴¹⁾ 이들이 과연 조선에서 이 영화를 관람했는지 알 수 없거니와, 특히 후자의 경우 만약 관람했다면 그곳은 일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직접 이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이들, 이들의 문장을 통해서 간접화된 영화 감상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했을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화설명 음반이었을 터이다. 특히 중일전쟁(中日戰爭)을 전후로 하여, 서양영화 상영의 제한을 받거나, 심지어 개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시국에서 영화해설 음반은 서양영화의 관람을 대신하는 체험을 제공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0) 기사, 『試寫室一審判』은 『썬타-크』 八卷, 『朝鮮日報』, 朝鮮日報社, 1930. 7. 18. 5면; 『名映畫拔萃帖』, 『東亞日報』, 東亞日報社, 1934. 12. 4. 3면; 『米國映畫界에서는 長尺필름 大流行 MGM 以下 各社 競爭』, 『每日申報』, 每日申報社, 1936. 6. 16. 6쪽.

41) 李鳩, 위의 글, 위의 책, 276면; 文藝峰, 위의 글, 위의 책, 346쪽.

이러하면 음반 발매 이후 시사회는 열렸으나 정식 개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沙漠의花園〉(Okeh12046, 1937. 8)이나, 신문사주최 독자 위안영화의 밤 행사에서 상영되었으나 정식 개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二國旗 알에〉(Okeh12118, 1938. ?)와 같은 음반이 그러하다. 이 음반들이 취입된 경우나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일본어 대본을 번역한 것이거나, 일본 잡지에 수록된 영화 소개를 근간으로 하여 조선어 영화설명 대본으로 구성한 것일 터이다.⁴²⁾

그런데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이 변사의 영화설명에 대한 관객·청취 대중의 취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간접화된 영화 감상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었던 사정과 관련해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음반들이 당시 대체로 1원 내외(보급반)에서 1원 50전(정규반) 사이의 제법 고가(高價)의 문화상품이었다는 사실이다.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이 한창 발매되던 1930년대 영화 관람료가 대체로 10전에서 50전 사이였던 사정을 염두에 두고 보면⁴³⁾, 음반을 통해 변사의 영화설명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화 관람료의 10배를 상회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더구나 양면반 2매로 발매된 〈쑤-제스트〉, 〈하남을 낪은 洞里〉(Columbia40108-9, 1930. 5), 〈춘희〉의 경우는 그 이상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이 발매된 것은, 특히 김영환이 취입한 〈춘희〉의 경우 정규반에 이어 보급반으로도 발매되었던 것은, 그만큼 그의 영화설명이, 또한 서양영화가 당시 조선

42) 이화진, 「II 토키 이행기 극장의 문화적 지형 변화」, 『식민지 조선의 극장과 소리의 문화 정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0~41쪽.

43) 社告, 『讀者慰安映畫大會』, 『東亞日報』, 東亞日報社, 1932. 1. 20. 3면; 기사, 『馬山讀者慰安』, 『東亞日報』, 東亞日報社, 1935. 5. 21. 3면. 한편 1943년 『조선총독부관보』의 한 기사에 따르면 상설영화홍행장은 1급에서 11급 사이의 등급에 따라 나뉘었고, 그에 따라 입장요금도 최고 80전에서 최저 25전 사이로 나뉘었던 것으로 보인다. 告示, 『朝鮮總督府告示第793號』, 『朝鮮總督府官報』 第4924號, 朝鮮總督府, 1943. 7. 2. 3면.

의 관객·청취 대중에게 호응을 얻는 문화상품이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4. 영화설명의 서사, 관객·청취 대중의 취향

이처럼 영화설명 음반이 고가의 문화상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규모로, 또한 일부 인기 있는 작품의 경우 반복적으로 음반이 발매되었던 배경에는, 영화의 서사는 물론 변사에 의한 그 연행을 사적으로 감상하고자 하는 조선인 청취 대중의 욕망이 가로놓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화가 영화관이라는 공공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영상을 감상하는 매체인 반면, 음반은 영화관보다는 훨씬 협소한 공간, 특히 가정과 같은 사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음향을 감상하는 매체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도, 음반도 모두 복제기술매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나, 영화가 주로 영화관에서 영상을 1회적으로 감상하는 매체인 반면, 음반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음원을 반복적으로 감상하는 매체이다.⁴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근대기 조선의 관객·청취 대중으로 하여금 단지 영화만이 아니라 음반을 통해서도 영화의 서사를 반복적으로 감상하도록 이끌었던가?

44) 渡辺裕, 『II. 近代的聴衆の動揺』, 『聴衆の誕生—のポストモダンの音楽』, 東京:春秋社, 2004, 70~73면; 細川周平, 『2. 聴取の複製技術』, 『レコードの美学』, 東京:勁草書房, 2006, 116~119면. 다만 유성기음반은 음반의 재질(천연수지 shellac·carbon black·copal gum의 합성물)과 유성기라는 재생기기(鐵針과 높은 針壓, 약78rpm)의 특성상 30회전 이상 재생할 경우, 음질이 심각하게 열악해 지거나 재생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한계를 지닌다. James Martin·William Zinsser외, 이진원 역, 『셀락(Shellac)』, 『한국음반학』 제2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2; 김병오, 『유성기 복각 음반의 음정과 회전수』, 『한국음반학』 제12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2.

그러한 사정은 일단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정규반과 보급반으로 두 차례 이상 발매되었던 서상호·김영환의 〈명금〉과 김영환의 〈동도〉를 통해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이 두 영화는 조선에서 지속적으로 재개봉되기도 했거니와, 영화만이 아니라 소설과 연극 등 이중 서사의 형태로도 향유될 만큼 상당한 환영을 받았다. 그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정규반과 보급반으로 영화설명 음반 또한 재발매를 거듭했으니, 영화설명의 서사, 관객·청취 대중의 취향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명금〉은 소설가 키티 그레이(Kitty Gray), 프레드릭(Frederick) 백작, 로로(Roleau)가 숨겨진 보물을 둘러싸고 벌이는, 당시 표현을 빌자면 ‘탐정활극(探偵活劇)’ 혹은 ‘모험(冒險)활극’이다.

조선에서 영화 〈명금〉은 흔히 ‘명금대회’라는 명칭으로 1916년 이후 조선 전역에서 적어도 여섯 차례 이상은 상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⁴⁵⁾ 이 영화가 상영될 당시 정경은 박태원의 소설 『오월(五月)의 훈풍(薰風)』(1933)과 이태준의 소설 『사상(思想)의 월야(月夜)』(1941~1942)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근대기 풍속지(風俗誌)라고 할 만한 이 두 소설에 따르면, 당시 경성의 조선인들은 명금 대회가 열리면 우미관(優美館)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이 영화를 반복해서 관람하기도 했으며, 어린이들은 ‘명금 놀이’에 빠져 지내기도 했다.⁴⁶⁾ 뿐만 아니라 이 영화 〈명금〉은 이미

45) 『매일신보』 소재 기사: (1)『大冒險劇의 大王 名金 全十三編 五十卷』(1916. 6. 24. 3면), (2)『歌舞伎座에 名金, 團成社 一行을 請하여다가 해』(1920. 9. 1. 3면), (3)『團成社의 名金大會』(1920. 9. 9. 3면), (4)『地方通信一名金 大盛況』(1921. 2. 14. 4면), (5)『天道教堂에 名金 上映, 紫霞青年會 主催』(1924. 12. 1. 3면), (6)『純益金은 貧民에, 名金大會를 開催』(1923. 2. 3. 3면), 『동아일보』 소재 기사: (1)『饑饉救濟 活動寫眞 에데는 『명금』』(1924. 12. 6. 3면), (2)『本報讀者優待』(1925. 12. 5. 4면), (3)『讀者慰安 映畫』(1928. 6. 10. 4면), 『조선일보』 소재 기사: 『饑饉映畫 紫霞青年會主催로 今五 日부터 慶雲洞 天道教堂에서 『名金』을 映寫』(1924. 12. 6. 2면).

1916년 경 일본에서 몇 종의 소설로 간행되었으며, 단성사의 지방순업이 있던 무렵 조선에서도 일본의 소설을 번역(안)한 3종의 소설이 간행된 바 있다.⁴⁷⁾

이처럼 이 영화는 후일에도 두고두고 회자될 만큼 폭넓은 환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 관객에게 연속영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영화감상에 대한 태도를 일변하게 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⁴⁸⁾ 또한 서상호의 영화설명은 조선에서 본격적인 영화설명으로 평가받기도 했다.⁴⁹⁾ 영화 〈명금〉의 영화설명은 우미관에서 개봉할 당시부터 서상호가 도맡았던 것으로 보이는데⁵⁰⁾, 그러한 사정으로 첫 영화설명 음반(〈명금〉, 일축조선소리판K859, 1932. 2)도 그가 취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일본어, 조선어 소설의 판본마다 내용의 편차가 크지만, 대체로 이 〈명금〉의 서사는 미국의 탐정소설 작가인 키티 그레이(Kitty Gray)가 우연히 발견한 금화 반쪽에 새겨진 라틴어 문장을 단서로 남유럽 고대 왕국의 숨겨진 보물을 둘러싸고 온갖 모험, 위기와 간난신고, 심지어 전쟁까지 겪은 후, 보물을 둘러싼 비밀도 풀고 금의환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상호의 영화설명 〈명금〉은 시작부터 프레데릭

46) 박태원, 『오월(五月)의 훈풍(薰風)』,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깊은샘, 1989, 100~103면. 이태준, 『서울』, 『사상(思想)의 월야(月夜)』, 깊은샘, 1996, 108~109, 158~159면.

47) 尹秉祖, 『探偵冒險小説 名金』, 新明書林, 1920; 宋完植, 『사진소설대활극 名金』, 永昌書館, 1921; 姜夏馨, 『探頂昌險小説 名金』, 太華書館, 1934.

48) 李龜永, 『朝鮮映畫界의 過去-現在-將來』, 『朝鮮日報』, 朝鮮日報社, 1925. 11. 26. 3면.

49) 기사, 『그것은 누가 시작하였던가』 三尺童子도 다 알든 『名金』의 기지 쭈레, 『每日申報』, 每日申報社, 1936. 1. 7. 3면. 기사, 『活動辯士座談會』, 『朝光』 第4卷 第4號, 朝鮮日報社出版部, 1938. 4. 293쪽.

50) 기사, 『禮壇一百人(100)』, 『每日申報』, 每日申報社, 1914. 6. 11. 3면. 한편 1921년 단성사의 지방순업(巡業) 당시에는 분명히 서상호가 영화설명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기사, 『團成社의 名金大會』, 위의 책, 같은 면.

백작에 잠입했다가 발각된 키티 그레이가 백작에게 납치되어 사막으로 끌려가는 장면까지, 즉 본격적인 모험과 활극이 시작되는 대목까지이다. 음반번호 '일축조선소리판K859' 음반이 일본콜럼비아축음기주식회사 초기의 보급반이며, 그 재발매 음반이 음반번호 'RegalC109' 음반이라고 보면, 서상호가 이 외에 다른 대목을 취입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흔히 영화설명 음반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양면반 1매로 발매되었던 사정으로 인해, 원작의 서사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거나, 혹은 가장 극적인 대목만을 제시하기 일쑤이다. 그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보면 서상호의 영화설명 〈명금〉은 이채롭다. 더구나 김영환의 영화설명 〈명금〉은 양면반 1면에 세 작품을 취입했던 이유로, 서상호가 제시한 부분 가운데에서도 특히 로로가 키티 그레이의 가짜 명금을 훔치는 장면부터 키티 그레이와 프레데릭 백작의 저택에 잠입하는 장면까지만 제시했다. 소설 〈명금〉의 전체 서사를 염두에 두고 보면 김영환의 〈명금〉은 서상호의 〈명금〉 가운데에서도 대략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⁵¹⁾, 음원과 영화설명 텍스트의 분량으로 보면 서상호의 텍스트(약7분, 총2786음절)보다 훨씬 적은 부분(약1분, 총328음절)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바야흐로 시작될 주인공의 모험과 금화 조각들을 둘러싼 쟁투와 갈등의 긴장, 근대 도시 뉴욕에서 대서양을 거쳐 남유럽의 중세풍의 궁정을 거쳐 사막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마적 풍경, 대도시의 자동차 추적과 여객선 여행, '육혈포'와 격투의 액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설보다도 훨씬 영화의 내러티브를 생생하게 전하는 영화설명 〈명금〉 음반의 경우 변사 서상호와 김영환이 한결같이 선택한 것은 '육혈포'와 격

51) 영화 〈명금〉의 재판(미국 개봉 1915. 10. 3)의 서사까지 포함한 송완식의 소설 가운데, 서상호의 영화설명은 “一. 소설의 지료를 구하라고”부터 “六. 불갓흔 사막디옥의 산송장” 전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취입했다. 宋完植, 위의 책, 1~14면. 한편 송완식의 소설은 모두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의 액션이었다.

서상호와 김영환의 영화설명이 전체 서사 가운데 전반부의 일부만 취입한 이유는, 그 대목이야말로 당시 이 영화의 관객 혹은 영화설명 음반의 청취자가 영화 〈명금〉 내러티브에서 가장 선호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액션에 대한 당시 조선인 관객에 대한 환호는 최찬식이 평론을 통해서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⁵²⁾, 조선어 소설 『명금』의 첫 광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⁵³⁾ 즉 낯선 이국 풍경들을 배경으로 보물을 둘러싼 비밀·음모·육망·배신이 복잡하게 얽혀 이루어진 서스펜스, 특히 여성 주인공의 모험과 활약이 중심을 이루는 서사는 당시 조선의 관객·청취 대중에게 매우 흥미로운 체험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건대 서상호와 김영환은 당시 영화 〈명금〉에 대한 조선인 관객 혹은 독자들의 취향에 부합하면서도, 그 서사를 가장 인상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대목을 음반으로 취입했던 것이다. 따라서 서상호와 김영환의 〈명금〉은 할리우드 영화 이입 초기 조선의 관객들의 활극 선호 취향을 반영하는 사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⁴⁾

52) “抑或 繪畫와 同一한 寫眞의 影中에서 人은 語하고 馬는 走하며 自働車 飛行機는 實物과 如히 活動함이 神異하여 此에 趣味를 附하노는 又或 外國의 山川風物과 人情習俗을 見함에 趣味를 附하노는”(海東樵人, 「活動寫眞을 觀覽하는 趣味」, 『半島時論』 第1卷 第1號, 東京: 半島時論社, 1917. 4, 95쪽)

53) “名金 寫眞 全五十編의 對한 大奇蹟이 此册一部로 瞭然 可□케 되얏슴은 勿論이오 節節句句의 妙文마다 神出鬼沒하고 奇奇怪怪한 事實의 趣味는 가히 吾人으로 해야 금 不可不 讀할 寶典이오니 絶刊되기 前에 陸續速히 購覽하시오.”(광고, 「大活劇 探偵冒險小說 名金」, 『朝鮮日報』, 朝鮮日報社, 1920. 12. 2. 3면)

54) 기사, 「모-던風聞錄: 戀愛와 思想上 明朗을 차져 映畫館에 大衆集散 三二年獵奇的流行(五)」, 『每日申報』, 每日申報社, 1932. 12. 14. 8면. 白岳學人, 「米國映畫의 害毒」, 『三千里』 第13卷 第6號, 三千里社, 1941. 6. 安夕永, 「米國映畫와 朝鮮」, 『朝光』 第5卷 第7號, 朝鮮日報社出版部, 1939. 7.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지를 참조할 수 있다. 이순진, 「활동사진의 시대(1903-1919), 조선의 영화 관객성에 대한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16호, 대중서사학회, 2006, 242~252쪽.

한편 <동도>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전 영화와 원작 희곡(1898)까지 현전하는 작품이다.⁵⁵⁾ 첫 개봉 당시부터 배급과 상영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했던 이 영화 <동도>는, 1923년 3월 10일 단성사에서 개봉한 이래 여러 차례 조선에서 상영되었으며⁵⁶⁾,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연극으로도 각색되어 상연되기도 했다. 김영환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일찍이 단성사와 조선극장에서 이 작품을 설명했으며, 단성사에서 두 번째로 개봉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방순업에도 참여했다고 한다.⁵⁷⁾ 김영환은 그 시기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으나, 적어도 그가 <동도>의 첫 영화해설 음반(일축조선소리반K621, 1927. 2)을 취입했던 무렵에는 단성사에서 <동도>의 설명을 도맡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싶다. 그 만큼 <동도>는 변사 김영환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영환이 영화 <동도>가운데에서 음반으로 취입했던 부분은, 여자 주인공 안나(안나 모어)가 그녀의 약혼과 출산의 전력을 알게 된 바틀렛 판사(아마사 바틀렛)로부터 쫓겨나자, 바틀렛 판사의 아들이자 안나를 연모(戀慕)한

55) 로티 블레어 파커, 오세준 옮김, 『Way Down East 동도』, 소명출판, 2011.

56) 『매일신보』 소재 기사: 『名畫『東道』로 問題된 문예영화양형과 모리쓰 간에 분쟁이 장차 일어날 동쪽의 길』(1923. 3. 8. 3면), 『映畫『東道』가차압에 실패한 모리쓰 씨의 심산 여하』(1923. 3. 12. 3면). 『동아일보』 소재 기사: (1)『第一回三友會出演 活寫·洋樂·妓生演奏』(1925. 5. 28. 2면), 『메社 朝鮮配給 名作二十種『紀新洋行』配給』(1927. 8. 11. 3면), (2)『讚映會 第三回 名畫鑑賞會 來一日부터 五日間 團成社에서 『東道』와 『내가 王子이면』 上映』(1929. 1. 30. 3면). 『조선일보』 소재 기사: (1)『東道 5月 29日부터 團成社에 上映한다』(1925. 5. 30. 3면), (2)『東道 『그리피스』 監督作 去二十九日부터 團成社에서』(1925. 5. 30. 3면), (3)『本報仁川支局 讀者優待 二·三 兩日間 外里愛館에서 『東道』 및 數種의 寫眞과 大正天皇 國葬畫報 等を 上映』(1927. 3. 2. 2면), (4)『讚映會 映畫鑑賞會 今日부터 團成社에서』(1929. 2. 1. 3면), (5)『光州에서 映畫大會 開催 光州 映畫 三友會 主催와 本報支局 後援 下에 去十日부터 光州座에서 『東道』와 『曠源의 志士』 等』(1929. 2. 12. 4면). 『조선중앙일보』 소재 기사: 『新作 東道』(1936. 4. 17).

57) 金永煥, 『痛快한 活動寫眞』, 『別乾坤』 第6號, 開闢社, 1927. 6. 52쪽.

데이비드가 안나의 약혼자인 샌더슨(레녹스 샌더슨)을 단죄하고 천신만고 끝에 얼어붙은 폭포에서 빈사(瀕死)에 처한 안나를 구해 결국 결혼하는 대목이다.

현전하는 영화와 희곡으로 보건대, 이 영화설명 〈동도〉는 영화의 절정과 결말, 그리고 연극의 제3막 마지막부터 제4막을 축약하여 제시한 텍스트로 여겨진다.⁵⁸⁾ 김영환이 바로 이 부분을 음반으로 취입했던 이유는, 일단 7분(양면반 1매) 내외의 제한된 시간 안에 취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터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대목은 파국과 갈등, 징벌(懲罰)과 화해 등 영화 가운데에서도 가장 극적인 요소를 집약하고 있거니와, 안나의 가련한 운명과 설분(雪憤), 데이비드의 헌신적인 사랑의 완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김영환에 따르면 당시 관객들도 안나가 쫓겨나는 장면에서 분노와 동정을 금치 못했다고 한 바로 보건대⁵⁹⁾, 관객은 물론 음반의 청취 대중들까지도 안나의 기구한 운명과 데이비드의 헌신적인 사랑에 깊이 감명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당시 적지 않은 관객들이 김영환의 영화설명 일부를 외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김영환이 영화설명의 말미에서, “한 남자에게는 오죽 한 여자이니, 이 약속을 지키고 어기는 거기에 이 세상의 인간 세상에 불행과 행복이 나누이게 될 것이다”고 웅변한 것은 주목을 요한다. 물론 이것은 이 영화의 도입부 자막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⁶⁰⁾, 김영환이 영화 서사를 편집하여 주제를 재정의하는 부분이다. 그

58) 로티 블레어 파커, 오세준 옮김, 『제3막』·『제4막』, 위의 책, 139~177면. 다만 희곡 〈동도〉에는 김영환의 영화설명과 원작 영화 〈동도〉와 달리 주인공 데이비드와 안나의 결혼식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59) 金永煥, 위의 글, 위의 책, 53쪽.

60) 그 자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Since the beginning of time man has been

리고 이 서사가 그토록 조선의 관객·청취 대중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영환은 “人間으로서 인 呼訴, 反抗, 人情의 幾微와 참의 눈물”을 제시한 데에 이 작품의 생명이 깃들어 있으며, 또한 이 작품을 “一夫一妻의 約束을 직히라는 男女交際의 教科書”로 이해하고 있었다.⁶¹⁾ 그리고 관객·청취 대중 또한 이 영화의 서사를 그러한 주제에 근간하여 이해하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즉 이러한 〈동도〉의 멜로드라마 혹은 신파의 서사와 주제는, 그 보다 앞서 김영환이 취입한 다른 영화극 음반인 〈不如歸〉(Columbia40093-4, 1930. 4)에서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무성영화시대 변사가 재현한 서사의 핵심적 요소가 바로 이 신파의 서사와 주제였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⁶²⁾ 특히 이 〈동도〉의 경우, 근대기 조선에서 남녀의 혼사장애와 가부장적 인습에 의한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이 중심을 차지하는 신소설·신파극의 플롯과 연동한다. 그리고 인습으로부터 벗어나 남녀평등에 근간한 부부애, 부부중심의 단란한 근대적 가정생활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고자 했던 당시 독자, 관객 그리고 청취 대중의 서사적 취향과 정확히 부합한다.⁶³⁾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근대기 조선에서 영화 〈동도〉는 일

polygamous-even the saints of Man gave a new thought, and the world is growing nearer the true ideal. He gave of One Man for One Women, Not by laws-our Statutes are now overburdened by ignored laws-but within the heart of man, the truth must bloom that his greatest happiness lies in his purity and constancy.”(〈Way Down East〉, United Artists, 1920)

61) 金永煥, 위의 글, 위의 책, 54쪽.

62) 최정인, 『한국영화 신파성의 기원에 관하여』, 『대중서사연구』 제9집, 대중서사학회, 2003.

63) 최태원, 『변안소설·미디어·대중성』, 사예구사 도시카쓰 외, 『한국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구인모, 위의 글, 위의 책. 권정희, 『제2부 식민지 조선의 ‘호토토기스’의 변용』, 『『호토토기스』의 변용』, 소명출판, 2011. 우수진, 『제4장 신파극의 멜로드라마, 근대를 연기하다』, 『한국 근대연극의 형성』, 푸른사상, 2011.

쭉 근대적 연애의 서사로 이해되기도 했던 것이다.⁶⁴⁾

김작전대 김영환은 그러한 당시 조선인의 서사적 취향을 제법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를테면 김영환이 일본콜롬비아사에서 정규반으로 〈백장미〉와 〈춘희〉을, 일본빅터사에서 〈희 무정〉을 취입한 이후 다시 보급반으로 〈설명레뷰〉를 취입했던 사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미 정규반으로 발매했던 이 작품들을 다시 보급반으로 취입하면서 김영환이 부각시켰던 대목은, 주로 임신한 몸으로 연인에게 버림받고 남의집살이를 하는 여성(〈백장미〉)과 임신한 몸으로 연인에게 버림받고 타락과 죄의 굴레에서 수인(囚人)이 되고 만 여성(〈부활〉), 그리고 한미한 신분으로 인한 혼사장애와 불치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여성(〈춘희〉)의 기구한 운명의 서사였다. 또한 가난과 죄(혹은 누명) 그리고 사회적 편견으로 비참한 삶을 감내하는 인간(〈희 무정〉, 〈침묵〉)의 기구한 서사였다. 즉 이러한 김영환의 〈설명레뷰〉 음반은, 당시 조선인의 멜로드라마 혹은 신파 서사에 대한 취향과 그것에 가장 잘 부합했던 변사 김영환의 감각이 이루어낸 성공적인 사례였다고 하겠다.

5. 결론

요컨대 이러한 영화설명 음반은 단지 근대기 조선의 서양영화의 수용과 향유의 양상을 둘러싼 사정만이 아니라, 그 서사가 음반의 매체적 특성은 물론 변사를 중심으로 한 음반제작의 메커니즘에 의해 변용되는 양상까지도 드러낸다. 더욱이 당시 서양영화에 대한 조선인들의 취향은

64) 기사, 『享樂의 大京城』—哀然한 音樂으로 展開되는 視線劇, 『每日申報』, 每日申報社, 1925. 6. 11, 2면.

물론, 그들이 영화의 서사에 투고하고자 했던 특별한 욕망까지도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와 관련해서 주목할 대목은 영화설명 음반의 경우 원전 영화보다도 변사의 특별한 연행 자체가 영화 서사에 대한 관객·청취 대중의 이해는 물론 감수성과 욕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사실이다.

환언하자면 영화설명 음반은 서양영화를 기반으로 한, 혹은 서양영화로부터 파생된 서사의 특별한 생산·유통·소비의 매체였던 셈이다. 바로 그 점에서 영화 상영과 비슷한 시기에 한편으로는 영화설명 음반이 발매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설이 간행되었던 영화 〈명금〉의 경우는 흥미롭다. 비록 소설에 비해 제한된 분량의 내용의 서사만을 제시하는 한계가 있지만, 영화설명 음반은 적어도 문식력의 정도나 여부를 떠나 폭넓은 관객·청취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매체였다고 하겠다. 더구나 비록 영화 관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기회비용을 요하기는 하나, 변사의 육성과 영화의 서사를 사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소설에 비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매체였을 터이다.

김동원의 회고에 따르면 영화설명 음반은 당시 조선인 관객, 청취자 사이에서 제법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영화설명 음반이 한창 발매될 무렵, 유성기음반이 중산층 가정의 명절 오락 수단으로써, 유성기와 유성기음반의 보관과 관리가 가사(家事)의 일부로써 거론된다든가, 혹은 경성(京城)의 주택가에서 고성(高聲)의 유성기 소리가 중요한 문제로 거론된다든가, 혹은 유성기와 유성기음반으로 인한 향촌(鄕村)의 미풍양속의 타락이 거론된다든가 하는 사정으로 보건대⁶⁵⁾, 그러

65) 기사, 『음력설에 만히 쓰일 축음기의 손질, 일년에 한번은 소제를』, 『東亞日報』, 東亞日報社, 1935. 2. 1. 4면; 『주부노트, 레코드 보관법』, 『朝鮮中央日報』, 朝鮮中央日報社, 1934. 11. 21. 4면; 『주부노트 레코드를 오래 쓰는 법』, 『朝鮮中央日報』, 朝鮮中央日報社, 1935. 2. 23. 4면. 기사, 『擴聲蓄音器 午後 十時以後 禁止』, 『東亞日報』,

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영화설명 음반 또한 자연스럽게 근대기 조선의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의 광고가 당시 주요 일간지는 물론 음반회사 홍보잡지에 지속적으로 게재되었던 사정은, 관객·청취 대중의 호응의 정도를 엿볼 수 있는 척도라고 하겠다. 그렇게 서양영화를 음반으로 감상하는 체험은 근대기 조선인의 일상 속으로 자리 잡았으며, 무엇보다도 그 서사는 조선인의 취향과 감수성을 형성했을 터이다.

그런가하면 영화설명 음반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서양영화라는 문화상품은 물론 그 서사의 도입·유통·소비를 둘러싼 다면적·다층적인 국면을 반영한다. 이를테면 하나의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은, 조선에서 상영된(혹은 소개된) 영화와 그것에 대한 조선 관객들의 호응을 전제로 음반회사에 의해 기획되어, 번사(주로 상영 당시 번사) 혹은 음반회사 문예부에 의한 서사의 변형을 거쳐 음반으로 생산된 후, 다시 조선의 관객·청취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우선 그 기획과 생산의 주체가 주로 다국적 음반회사, 이를테면 미국(일본콜롬비아사·일본빅터사)과 유럽(일본폴리돌사)의 일본 현지 법인과 조선 지사라는 사실이다. 즉 영화설명 음반의 원전에 해당하는 영화 제작 및 배급의 주체와 사실상 동일한 셈이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서양영화의 영화설명 음반은 물론, 그 서사를 둘러싼 조선인의 취향이나 감수성 혹은 욕망까지도, 사실은 근대기 영화와 음반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의 자본과 기술의 전지구적 확산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그러한 사정은 영화설명 음

東亞日報社, 1934. 7. 1. 3면; 任貞嫻, 「이웃집 이야기: 流行歌레코드」, 『朝光』 第2卷 第1號, 朝鮮日報社出版部, 1936. 1. 宋錫夏, 「農村娛樂의 助長과 淨化에 對한 私見 (十七)」, 『東亞日報』, 東亞日報社, 1935. 7. 11. 3면.

반의 변사 또한 단지 관객·청취 대중이 언어의 경계를 넘는 서사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전신자(前信者)라든가, 외래의 서사를 조선인 관객·청취 대중의 취향과 감수성에 부합하도록 (재)고안·(재)정의하는 편집자로서의 위상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문화산업의 에이전트(agent)이기도 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한다.

또한 서양 영화의 관객은 물론 영화설명 음반의 청취 대중으로서 조선인도 영화와 음반을 둘러싼 전지구적인 의사소통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취향이나 감수성을 형성하고 욕망을 투사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요컨대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은, 근대적·서구적 대중서사의 생산·유통·소비를 둘러싼 다면적이고도 다층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그것이 비서구·식민지 조선의 대중문화의 특징적인 국면을 드러내는 시금석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깊은샘, 1989.
- 이태준, 『사상(思想)의 월야(月夜)』, 깊은샘, 1996.
- 京城日報社·每日申報社 編, 『昭和十三年 朝鮮年鑑』, 京城日報社·每日申報社, 1937, 618면; 京城日報社, 『昭和十五年 朝鮮年鑑』, 京城日報社, 1942.
- 朝鮮總督府警務局圖書科, 『朝鮮出版警察月報』 第103號, 朝鮮總督府警務局圖書科, 1937. 4.
- 北島俊碩, 『名金:世界的大活劇』, 東京: 春江堂書店, 1916. 長瀬春風, 『名金:探偵活劇(前·後)』, 東京: 博文館, 1916.
- 저자 미상, 『名金(上卷·下卷)』, 東京: 活動之世界社, 1916.
- 竹内斷腸花, 『名金』, 東京: 活動文芸社, 1916. エマーソン·ホ, 田口桜村 編, 『名金:世界的大探偵(正編·続編)』, 東京: 三芳屋書店, 1916.
- 俊碩劍士, 『名金: 探偵活劇(一·二·三)』, 東京: 江東書院, 1916.
- 青木緑園, 『名金: 探偵小説』·『名金: 探偵小説(續)』·『其後の口ロー: 名金 外篇』, 東京: 中村日吉堂, 1916.
- 黒谷天洞 編, 『名金: 探偵活劇』, 東京: 講談落語社, 1916.
- 저자 미상, 『名金(上卷)』, 鹿兒島: 世界館, 1916.
- エマーソン·ホー, 齋木嶺水 訳, 『名金: 活動弁士の説明したる世界的探偵奇譚』, 東京: 齋木義一, 1916.
- エマーソン·ホオ, 『名金:探偵活劇(前)』, 久留米: 栄館, 1916.
- 로터 블레이 파커, 오세준 옮김, 『Way Down East 동도』, 소명출판, 2011.

2. 논문과 단행본

- 구인모, 『지역·장르·매체의 경계를 넘는 서사의 역정』, 『사이間SAI』 제6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9, 37-71쪽.
- 권정희, 『『호토토기스』의 변용』, 소명출판, 2011.
- 김동원, 『미수의 커튼콜(김동원 나의 예술과 삶)』, 태학사, 2003.
- 김병오, 『유성기 복각 음반의 음정과 회전수』, 『한국음반학』 제12호, 한국고음반연구회, 2002.
- 배연형, 『빅타(Vitor) 레코드의 한국 음반 연구』, 『한국음반학』 제4호, 한국고음반연

- 구회, 1994.
- _____, 『콜럼비아(Columbia) 레코드의 한국음반연구(1)』, 『한국음반학』 제5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5.
- _____, 『콜럼비아(Columbia) 레코드의 한국음반연구(2)』, 『한국음반학』 제6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6.
- _____, 『포리돌(Polydor) 레코드의 한국음반 연구』, 『한국음반학』 제7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7.
- 안중화, 『한국영화측면비사』, 현대미학사, 1998.
- 우수진, 『한국 근대연극의 형성』, 푸른사상, 2011.
- 최정인, 『한국영화 신파성의 기원에 관하여』, 『대중서사연구』 제9집, 대중서사학회, 2003, 81-106쪽.
- James Martin · William Zinsser 외, 이진원 역, 『셀락(Shellac)』, 『한국음반학』 제2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2, 421-435쪽.
- 渡辺裕, 『聴衆の誕生—のポストモダンの音楽』, 東京:春秋社, 2004.
- 사에구사 도시카쓰 외, 『한국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 細川周平, 『レコードの美學』, 東京: 勁草書房, 2006.

[부록 근대기 서양영화 영화설명 음반 총목록

연번	음반 번호	제목	취입	발매 일자	대사	음원	원작(추정 포함)	비고
1	일축 조선 소리반 K590	저 언덕을 넘어서	金憲經	1926. 10			• (Over the Hill)(1920) 감독: Henry King 주연: Mary Carr William Welsh 미국	• 1924년 초 조선 개봉 추정(『동아일보』 1925. 1,1) *무성영화
2	제비표 조선 레코드 B151	똥큐	金肇盛	1927. 11			• (Don Q, Son of Zorro) (1925) 감독: Donald Crisp 주연: Douglas Fairbanks/ Mary Astor 미국(UA)	• 1926.10.20. 조선극장 개봉(『동아일보』 1926. 10,21) *무성영화
3	일축 조선 소리반 K621	東道	金永煥	1927. 2			• (Way Down East) (1920/일본개봉 1922) 감독: David Wark Griffith 주연: Lillian Gish/Richard Barthelmess, 미국(UA)	• 1923.3.10 단성사 개봉 (『매일신보』, 1923.3.12) • 1923.11.28 조선극장 개봉(『동아일보』, 1923. 11,30) • 1925.5.29. 단성사 상영 (『동아일보』 1925.5.28) • 1927 가을 개봉 예정 (『동아일보』 1927.8.10)
	Columbia 40204	東道	金永煥	1931. 6		○	• (Way Down East) (1935) 감독: Henry King 주연: Rochelle Hudson/Henry Fonda, 미국	• 1929.2.1. 단성사 상영 (『동아일보』 1929.1.30) • 1936. 4 하순 조선극장 개봉(『조선중앙일보』 1936.4.17) *무성영화
4	제비표 조선 레코드 B141	愛國의 喇叭	金永煥	1927. 7			미국(UV)	• 1926.1.16. 단성사 개봉 (『동아일보』 1926.1.18)
5	Victor 49040	白薔薇	金永煥	1928. 12		○	• (The White Rose)(1923) 감독: D.W. Griffith 주연: Mae Marsh/Ivor Novello 미국 United Artists	• 1927.1.14 단성사 개봉 (『동아일보』, 1927.1.14.) *무성영화
	Regal C159	說明레뷰 (白薔薇)	金永煥 李애리수 (노래)	1934. 7		○		
6	Victor 49016	噫 無情	金永煥	1929. 1			• (Les Miserables)(1913) 감독: Paul Capellani 주연: Henry Krauss 프랑스 • (Les Miserables)(1917) 감독: Frank Lloyd 주연: William Farnum/ Hardee Kirkland 미국 • (Les Miserables)(1925) 감독: Henri Fescourt/ Louis Nalpas 주연: Gabriel Gabrio/ Paul Jorge 프랑스 Pathe(일본매급 Universal)	• 1915.4.5 朝鮮中央基督 教青年會館 상영 (『每日申報』 1915.4.3) • 1920.5.11~13 朝鮮中 央基督教青年會館 상영 (『每日申報』 1920.5.9) 번사: 김덕경·서상호 • 1923.1.17 단성사 상영 • 1925.11.20 단성사 개봉 (『朝鮮日報』 1925.11.21) • 1925.11.25 단성사 특별 상영(『每日申報』 1925. 11.25) • 1927.9.20 단성사 개봉 예정(『每日申報』 1925. 9.11) • 1927.9.21 단성사 개봉 예정(『朝鮮日報』 1927.
	Regal C159	說明레뷰 (噫無情)	金永煥 李애리수 (노래)	1934. 7		○	○	

									9, 21) • 감성평(『每日申報』 1920. 5.14~19; 『東亞日報』 1922.11.10~11) *무성영화
7	Columbia 40058-9	썬-게스트	金肇盛	1929. 12		○		• 〈Beau Geste〉(1927) 감독: Percival Christopher Wren/ Louis Nalpas 주연: Ronald Colman/ Neil Hamilton 미국(PM)	• 1927.11.20, 조선극장 시사회(『동아일보』 1927.11.20) *무성영화
8	Columbia 40066	熱沙의 舞	金永煥	1930. 2		○		• 〈The Son of the Sheik〉(1926) 감독: George Fitzmaurice 주연: Rudolph Valentino/ Vilma Banky 미국(UA)	• 1926.12.19 단성사 개봉 *무성영화
9	일축 조선 소리판 K8입07	第七天國	金肇盛	1930. 3				• 〈7th Heaven〉(1927) 감독: Frank Borzage 주연: Janet Gaynor/ Charles Farrell 미국(Fox)	• 1929.7.27 봉래좌 상영 (『동아일보』 1929.7.27) *무성영화
10	Columbia 40092	칼멘	金永煥	1930. 4		○		• 〈Blood and Sand〉(1922) 감독: Fred Niblo 주연: Rudolph Valentino/ Lila Lee 미국(PM) • 〈Carmen〉(1926) 감독: Jacques Feyder 페데 주연: Raquel Meller 프랑스 • 〈Loves of Carmen〉(1927) 감독: Raoul Walsh 주연: Dolores del Rio/ Victor McLaglen 미국(Fox)	• 1925.10.24, 조선극장 개봉(『동아일보』 1925. 10. 20) *무성영화
11	Columbia 40108-9	하나님을 날은 洞里	金永煥 卜惠淑	1930.5		○		• 〈The Town That Forgot God〉(1923) 감독: Harry Millarde 주연: Bunny Grauer/ Warren Krech 미국(Fox)	*무성영화
12	일축 조선 소리판 K8입12	深夜의 太陽	金永煥	1930. 7				• 〈The Midnight Sun〉(1926) 감독: Dimitri Buchowetzki 주연: Laura La Plante 미국	• 1927.7.1, 단성사 개봉 (『동아일보』 1927.7.1) *무성영화
13	Columbia 40110-1 Regal C159	椿姫 說明레뷰 (椿姫)	金永煥 李에리수 (노래)	1930. 8 1934. 7		○ ○		• 〈Camille〉(1921) 주연: Alla Nazimova/ Rudolph Valentino 미국 • 〈Camille〉(1927) 감독: Alexandre Dumas Fils 주연: Noma Talmadge/ Gilbert Roland 미국	• 1924.1.1, 조선극장 개봉 (『동아일보』 1924.1.1) *무성영화
14	Columbia 40112	蜂雀	金永煥	1930. 8		○		• 〈The Humming Bird〉(1924) 감독: Sidney Olcott 주연: Gloria Swanson Edmund Burns 미국(PM)	• 1927.4.16 단성사 개봉 (『동아일보』 1927.4.26) *무성영화

15	Columbia 40143	헨하	徐相弼	1931. 2		○	• 〈Ben Hur〉(1926) 감독: Fred Niblo 주연: Ramon Novarro/ Francis X. Bushman 미국(UA)	• 1929.1.10 단성사 개봉 (『동아일보』 1929.1.10) *무성영화
16	Columbia 40222	볼카	金永煥 李에리수 (노래)	1931. 8		○	• 〈The Volga Boatman〉(1926) 감독: Cecil B. DeMille 주연: William Boyd/ Elinor Fair 미국	• 1930.5.15 조선극장 개봉 (『동아일보』 1930.5.15) *무성영화
17	일축 조선 소리판 K846	暗窟王	徐相奘	1931. 10			• 〈Monte Cristo〉(1928) 감독: Henri Fescourt 주연: Jean Angelo/ Lil Dagover 프랑스	• 1930.5.9 조선극장 개봉 (『매일신보』 1930.5.9) • 1932.11.9 단성사 상영 (『동아일보』 1932.11.11) *무성영화
18	Polycdor 19019	惡魔의 寵兒	徐相弼	1932. 10			• 〈The Prince of Adventures Manolescu〉(1929) 감독: Viktor Tourjansky 주연: Ivan Mozzhukhin/ Brigitte Helm 독일	*무성영화
19	일축 조선 소리판 K859	名金	徐相奘	1932. 2			• 〈The Broken Coin〉(1915) 감독: Francis Ford 주연: Grace Cunard/ Francis Ford 미국	• 1916.6.23 우미관 상영 (『每日申報』 1916.6.24) • 1920.9.8 단성사 상영 (『每日申報』 1920.9.9) • 1921.2.8 단성사 순업부 순주상 상영(『每日申報』 1921.2.14) • 1923.2.11浪花館 상영 (『每日申報』 1923.2.3) • 1924.12.5 천도교기념 관상영(『東亞日報』 1924.12.6) *무성영화
	Regal C109	名金	徐相奘	1934. 7	○	○		
20	Victor 49151	悲歌	徐相弼 姜石燕 (독창)	1932. 7			• 〈Melodie des Herzens〉(1929) 감독: Hans Schwarz 주연: Dita Parlo/ Willy Fritsch 독일	*발성영화
21	Polycdor 19044	母性	徐相弼	1933. 1	○	○	• 〈Seed〉(1931) 감독: John M. Stahl 주연: John Boles/Genevieve Tobin 미국(UN)	*발성영화
22	Polycdor 19070	ჰან타크	成東鎬	1933. 8			• 〈La Passion de Jeanne d'Arc〉(1928) 감독: Carl Theodor Dreyer 주연: André Berley/ Maria Falconetti 프랑스	• 영화소개(『조선일보』 1930.7.18) *무성영화
23	Polycdor 19083	戒律의 樂團	成東鎬	1933. 10			미상	
24	Chieron 182	歸郷	金永煥	1934. 6			• 〈Heimkehr〉(1928) 감독: Joe May 주연: Lars Hanson/ Gustav Fröhlich 독일(UFA)	• 1931.3.1. 조선극장 개봉 (『동아일보』 1931.2.28) *무성영화
25	Chieron 193	거리의 등불	金永煥	1934. 6			• 〈City Lights〉(1931/일본개봉 1934.1.20) 감독·주연 Charlie Chaplin, 미국	• 1934.6.1. 조선극장 개봉 (『동아일보』 1934.6.1) *무성영화

26		說明레뷰 (沈黙)					• 〈Silence〉(1926) 감독: Max Marcin 주연: Vera Reynolds H.B. Warner 미국(배급 欧米映画社)	
27	Regal C159	說明레뷰 (復活)	金永煥 李에리수 (노래)	1934. 7	○	○	• 〈Resurrection〉(1917) 감독: Mario Caserini 주연: Maria Jakobini 이탈리아 • 〈Resurrection〉(1918) 감독: Edward Jose 주연: Pauline Frederick/ Robert Elliot 미국 • 〈Resurrection〉(1927) 감독: Edwin Carewe 주연: Rod La Rocque/ Dolores del Rio 미국(UA) • 〈Resurrection〉(1931) 감독: Edwin Carewe 주연: John Boles/ Lupe Velez 미국(UN)	*발성영화
28	Taihei 8140	浮萍草	李愚興 申銀鳳	1935. 6			미상	• 1928.4 조선극장 상영 (『조선일보』 1928.4.8)
29	Taihei 8144	자장가	李愚興 申銀鳳	1935. 7			• 〈The Lullaby〉(1924) 감독: Chester Bennett 주연: Jane Novak/ Warren William 미국	• 1925년 상영 (『동아일보』 1926.1.3)
30	Victor 49371	클레오 파트라	徐相弼	1935. 8			• 〈Cleopatra〉(1934) 감독: Cecil B. DeMille 주연: Claudette Colbert/ Robert Anderson 미국	• 1935.4.1 桃花劇場 상영 동아일보창간십오주년 기념(『동아일보』 1935. 3.30) *발성영화
31	Victor 493입11	크리스티나 女王	徐相弼	1935. 12			• 〈Queen Christina〉(1933) 감독: Rouben Mamoulian 주연: Greta Garbo/ John Gilbert 미국	• 1934.12.4. 영화소개 (『동아일보』 1934.12.4) *발성영화
32	Polyclor 19326	봄 소낙비	朴昌遠	1936. 8	○		미상	• 1933.9.29 조선극장 개봉 (『동아일보』 1933.9.28) *발성영화
33	Polyclor 19315	肉體의 道	朴昌遠	1936. 8	○		• 〈The Way of All Fresh〉 (1927) 감독: Jules Furthman 주연: Emil Jannings Belle Bennett 미국(PM)	• 1928.10.10 조선극장 개봉 (『조선일보』 1928.10.10) *무성영화
34	Polyclor 19337	로미오와 줄리엣	朴昌遠	1936. 9	○		• 〈Romeo and Juliet〉 (1935) 감독: Irving G. Thalberg 주연: Norma Shearer/Leslie Howard 미국(MGM)	• 영화소개(『매일신보』 1936.6.16) • 성동호 방송공연 (『동아일보』 1935.9.6) *발성영화
35	Polyclor 19356	모로코	朴昌遠	1936. 11	○		• 〈Morocco〉(1930) 감독: Josef von Sternberg 주연: Gary Cooper/Marlene Dietrich 미국(PM)	• 1931.10.7 조선극장 개봉 (『동아일보』 1934.10.8) *발성영화

36	Polydor 19378	制服의 處女	朴昌遠	1937.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ädchen in Uniform〉(1931) 감독: Leontine Sagan 주연: Dorothea Wieck Emilia Linca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8. 2.11 黄金座 상영 중(『동아일보』 1938. 2. 11) • 발성영화
37	Okeh 1968	海賊 플리트	柳寅晟	193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tain Blood〉(1935) 감독: Michael Curtiz, 주연: Errol Flynn, Olivia De Havilland 미국 W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6. 11. 26 단성사·若草劇場 개봉 (『매일신보』 1936.11.30) • 발성영화 • ‘治安妨害’ 이유로 발매 금지 처분(『朝鮮出版警察月報』 第10號 1937. 4)
38	Okeh 1991	隊長 뿌리버	金永煥	193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rass Boulba〉(1936) 감독: Alexis Granowsky 주연: Harry Baur/ Roger Duchesne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7. 2. 3 明治座 상영 중(『조선일보』, 1937. 2. 3) • 발성영화
39	Victor KJ1097	曲藝團	金永煥	193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riete〉(1925) 감독: Ewald Andre Dupont 주연: Emil Jannings/ Lya de Putti 독일 U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소개(『동아일보』 1927. 9. 4) • 1927. 9. 10 단성사 개봉 (『조선일보』 1927. 9. 10) • 무성영화
40	Okeh 12046	沙漠의 花園	柳寅晟	193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Garden of Allah〉(1936/일본개봉 1937. 4. 15) 감독: David O. Selznick 주연: Marlene Dietrich/ Charles Boyer 미국(U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7. 5. 11 단성사 유료 시사회(『매일신보』 1937. 5. 11) • 발성영화
41	Okeh 12086	나가자 龍騎兵	徐相弼	193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Charge of the Light Brigade〉(1936) 감독: Michael Curtiz, 주연: Errol Flynn/ Olivia De Havilland 미국(U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7. 5. 26 약조극장 개봉 (『매일신보』 1937. 5. 25) • 발성영화
42	Okeh 12118	二國旗 앞에	徐相弼	193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 Two Flags〉(1936) 감독: Frank Lloyd/ Raymond Griffith/ Otto Brower 주연: Ronald Colman/ Claudette Colbert 미국(배급 Fox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7. 7. 13-15 목포극장 상영 동아일보독자위안 영화의 밤(『동아일보』 1937. 7. 12) • 발성영화

Abstract

The SP records and western movies in modern Korea

Ku, In-Mo(Yonsei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first is an overview of the discography of the SP record, which recorded the narrative of Hollywood movies released in the Modern Joesun by analyzing the background of the album release and features. Then analysis of the works of the silent-film narrator who recorded mainly Hollywood movie, identify aspects of transformation that the film narrative by the silent-film narrator. Also by analyzing some case the original movie has been released several times into regular edition and a popular edition album, some case the same work recorded different silent-film narrator and some case the repertory of particular silent-film narrator, investigate the audience's taste for Hollywood movies and film narrative of silent-film narrator. finally, It is the result of the global spread of capital and technology based on the modern movies, records and cultural industries.

(Key Words : SP record, Hollywood movies, film narrative, silent-film narrator, cultural industries)

투고일 : 2013년 4월 30일 투고
심사일 : 2013년 5월 13~24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3년 6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3년 6월 10일 게재확정

